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7년 12월 21일(목) (총 10쪽)	담당부서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담당자	최난주 팀장 (043-880-5421) 손재석 조사관 (043-880-5424)

고령자 안전사고, 일상생활에서 예방이 중요

- 낙상사고 등으로 ‘골절’이나 ‘뇌손상’ 입을 수 있어 주의 필요
-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가이드 제작·배포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일상생활 중 겪는 가벼운 사고에도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거나, 치료 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가이드를 마련했다.

* 「소비자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 제출이 의무화된 기관으로 현재 전국의 병원 62개 및 소방서 18개 지정·운영 중

□ ‘주택’에서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낙상’ 사고가 가장 많아

2016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 건수는 5,7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건수(증감률): '14년 4,453건(16.2%), '15년 5,111건(14.8%), '16년 5,795건(13.4%)

사고 발생장소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인 ‘주택’이 60.5%(3,50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고 유형은 침실·화장실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침대·계단에서 추락하는 등의 ‘낙상’ 사고가 절반 가까운 47.4%(2,746건)로 가장 많았다.

낙상 사고로 발생한 손상은 ‘골절’이 44.2%(1,214건)로 가장 많았는데, 고령자는 골밀도 저하 및 근육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젊은층에 비해 가벼운 충격

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낙상에 따른 손상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34.7%(952건), '머리 및 얼굴' 33.2%(9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에는 뇌기능 감소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뇌출혈 등 '외상성 뇌손상'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2016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안전사고로 내원한 고령환자 중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82명의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낙상'이 76.8%(63명)로 대다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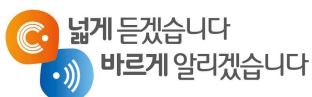
□ 고령자 가정·시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 필요

고령자는 한번 다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무엇보다도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령자에게 다발하는 낙상 등의 안전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예방법과 사고 시 대처방안 등의 안전가이드를 리플릿 형태로 제작했다. 동 자료는 고령 소비자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온라인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나 시설에서는 ▲ 침실이나 욕실, 화장실, 계단 등 주요 공간에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고 ▲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실내를 밝게 하며 ▲ 발에 걸릴 수 있는 문턱이나 낮은 가구 등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고령 친화적 안전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고령자용 보행차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고 ▲ 겨울철 빙판길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갈 것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정보제출기관과 함께 고령자나 어린이 등 주요 취약계층에게 다발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 등을 심층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2016년 고령자 안전사고 분석

□ (연도별 현황) 매년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 건수 증가

- 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는 5,795건으로 전년도 5,111건에 비해 13.4% 증가함.
- 전 연령 안전사고 건수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4년 6.6%, 2015년 7.5%, 2016년 8.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 연령층 안전사고 건수	67,037	68,002	69,018
고령자 안전사고 건수 (전년대비 증감률)	4,453 (16.2)	5,111 (14.8)	5,795 (13.4)
고령자 비율	6.6	7.5	8.4

□ (발생장소)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은 '주택'에서 발생

-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장소는 '주택'이 60.5%(3,506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도로 및 인도' 4.3%(246건), '숙박 및 음식점' 3.8%(2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주택	3,506	60.5
도로 및 인도	246	4.3
숙박 및 음식점	219	3.8
농·수·축산업 지역	176	3.0
의료서비스시설	174	3.0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135	2.3
복지 및 노인 요양시설	116	2.0
교통시설	113	1.9
기타*	1,110	19.2
계	5,795	100.0

* 쇼핑시설, 스포츠/레저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

□ (세부 사고유형) 미끄러짐·추락 등 '낙상사고'가 절반 차지

- 고령자 안전사고의 세부 유형은,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등 '낙상*' 사고가 47.4%(2,746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다음으로 '식품 및 이물질' 15.8%(913건), '기타 물리적 충격' 12.5%(7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계보건기구(WHO)는 낙상을 의도하지 않은 채로 동일면 상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정의함.

[세부 사고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낙상	미끄러짐·넘어짐	2,278	39.3
	추락	468	8.1
	소계	2,746	47.4
식품 및 이물질		913	15.8
기타 물리적 충격(부딪힘·눌림·끼임 등)		723	12.5
제품 관련		666	11.5
화재·화상		212	3.7
기타		535	9.1
계		5,795	100.0

□ (낙상사고 분석) 낙상 사고 시 '골절' 발생하는 경우 많아

- 고령자 낙상사고 2,746건의 손상증상은 '골절'이 44.2%(1,21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박상' 22.0%(605건), '열상(찢어짐)' 17.1%(4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낙상사고 손상증상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골절	1,214	44.2
타박상	605	22.0
열상(찢어짐)	470	17.1
뇌진탕	108	3.9
출혈 및 혈종	99	3.6
염좌	55	2.0
찰과상	51	1.9
기타	144	5.3
계	2,746	100.0

- 고령자 낙상사고로 손상된 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34.7%(952건), '머리 및 얼굴' 33.2%(912건), '몸통' 17.2%(471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낙상사고 손상부위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둔부·다리 및 발	952	34.7
머리 및 얼굴	912	33.2
몸통	471	17.2
팔 및 손	284	10.3
목 및 어깨	104	3.8
전신손상	4	0.1
신체 내부	2	0.1
미상	17	0.6
계	2,746	100.0

□ (외상성 뇌손상 분석) 낙상으로 '외상성 뇌손상'도 우려

- 2016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질병 외 안전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고령환자는 82명으로 전체 안전사고 고령환자(1,156명)의 7.1%를 차지함.

* 외부의 힘에 의한 충격이 두부에 가해져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 뇌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 고령자가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게 된 사고 원인으로는 '낙상'이 76.8%(63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기타 둔상' 13.4%(11명), '운수사고' 8.6%(7명) 등이 있었음.

[외상성 뇌손상 사고원인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환자 수	비율
낙상(추락 및 미끄러짐)	63	76.8
기타 둔상	11	13.4
운수사고	7	8.6
신체 과다사용	1	1.2
계	82	100.0

□ 주요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

○ 골절 사례

바닥재	2016년 10월 A씨(여성, 만 77세)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리(무릎 위) 부위가 골절됨.
콘크리트 계단	2016년 9월 B씨(여성, 만 68세)는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얼굴과 팔, 눈에 타박상을 입고 턱 부위가 골절됨.

○ 외상성 뇌손상 사례

바닥재	2016년 9월 C씨(여성, 만 76세)는 방에서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함.
목욕탕	2016년 10월 D씨(남성, 만 80세)는 목욕탕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에 뇌진탕을 입음.

○ 열상(찢어짐) 사례

책상용 의자	2016년 10월 E씨(여성, 만 73세)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에 열상을 입음.
에스컬레이터	2016년 10월 F씨(남성, 만 88세)는 쇼핑시설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끄러져 머리에 열상을 입음.

○ 타박상 사례

휠체어	2016년 5월 G씨(여성, 만 84세)는 요양원 생활 중 휠체어에서 소파로 이동하다가 넘어져 둔부에 타박상을 입음.
자전거	2016년 9월 H씨(여성, 만 71세)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손목에 타박상을 입음.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가이드

고령자에게
다발하는
낙상·골절사고에
유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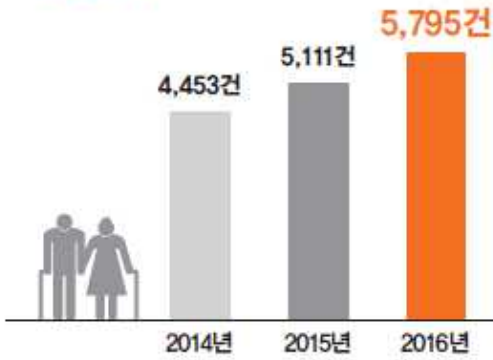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방안, 사고 발생시 조치 요령을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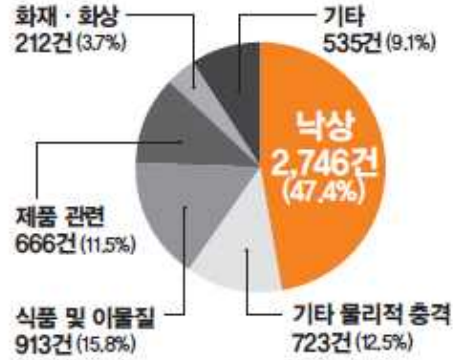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고령자 안전사고 현황]

▶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매년 증가



▶ 안전사고의 절반은 낙상사고



주택에서 낙상사고 다발	낙상으로 신체 골절 주의	고관절·다리 손상 많아
		
2,041건 (74.3%)	1,214건 (44.2%)	952건 (34.7%)

(2016년 한국소비자원 CBS 접수 현황)

[주요 안전사고 사례]



- 77세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무릎 위 부위가 골절되었습니다.
- 87세 할머니는 방에서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 84세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 중 휠체어에서 소파로 이동하다가 넘어져 둔부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주요 안전사고 예방 수칙]

1. 주택 등 주생활공간에 미끄럼 방지용 제품을 이용하세요.
 - 침실이나 욕실, 싱크대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세요.
 -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양말을 착용하세요.
2.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세요.
 - 화장실의 변기나 욕조 주변, 계단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세요.
 - 침대 주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안전하게 눕고 일어나세요.
3. 일상 생활공간을 밝고 안전하게 하세요.
 - 주택의 계단이나 현관문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세요.
 - 잠자리 주변에는 가급적 가구를 배치하지 않고,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패드를 부착하세요.
4.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세요.
5. 주기적으로 균형기능 향상 및 근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세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1. 가벼운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움직이기 어렵다면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갑니다.
- 부상이 심할 경우 저혈압, 저산소증 등으로 인한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병원 이송 등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2. 신체가 골절되었을 때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 등을 이용해서 고정시킵니다.

-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켜 부종을 줄이세요.
- 관절이나 뼈가 밖으로 만져지더라도 제자리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3. 머리부위를 다쳤을 때 척추 손상이 동반될 수 있어, 척추 부위를 고정하고 무리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신청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위해정보 신고

- 소비자신고 핫라인 : 080-900-3500 (통화요금 수신자 부담)
-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